

국제통화기금,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 발표

- 4월 전망 대비 '26년 세계 3.0%로 하향($\Delta 0.1\text{p}$), 한국 2.6%로 상향(+0.7%p)
- 한국의 상향 조정폭(+0.7%p)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최고 수준

국제통화기금(International Monetary Fund)은 7.8일(수) 22시(美 워싱턴 D.C. 현지시각 9시)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*(World Economic Outlook Update, 부제: “Global Economy in Crosscurrents of War and Technology”)을 발표했다.

* 연간 4차례(1·4·7·10월) 세계경제전망을 발표. 4월·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 주(主)전망이며, 1월·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 수정전망으로, 국가별 성장전망은 발표되나 국가별 물가전망 미발표

【세계경제】

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(AI)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경제의 '26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$\Delta 0.1\text{p}$ 하향된 3.0%로, '27년 성장률은 +0.2%p 상향된 3.4%로 전망했다.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진단했다.

선진국 그룹(한국,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일본 등 41개국)의 '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$\Delta 0.1\text{p}$ 하향된 1.7%로 전망되었다. 국가별로는, 미국(2.3%)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4월 전망수준이 유지되었고, 유로존(0.9%, 4월 대비 $\Delta 0.2\text{p}$)과 일본(0.6%, 4월 대비 $\Delta 0.1\text{p}$)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되었다.

신흥개도국 그룹(중국, 인도, 러시아, 브라질 등 155개국)의 '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$\Delta 0.1\text{p}$ 하향된 3.8%로 전망되었다. 중국(4.6%, 4월 대비 +0.2%p)은 첨단 제조업·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,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중동·중양아(0.7%, 4월 대비 $\Delta 1.2\text{p}$)는 에너지 수출 차질로 '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, '27년 정상화되며 6.5%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.

'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·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+0.3%p 상향된 4.7%(선진국 3.0%, 신흥국 5.8%)로 전망되었으며,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

금번 전망은 '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,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'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.

【한국경제】

한편,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'26년은 4월 대비 +0.7%p 상향된 2.6%, '27년은 +0.4%p 상향된 2.5%로 전망되었다.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(한국·대만·태국·말레이시아)으로 언급하면서,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이 높음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'26.1분기 성장률이 연율*(계절조정) 기준 7.5%를 기록, 당초 예상(4월, 1.8%)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.

* 해당 분기의 전기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

【리스크요인 및 제언】

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거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, 중동정세 불확실성, 무역 분절화,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. 아울러 AI의 경우,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, 기대 반전시 소비·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.

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정책권고 차원에서,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한편,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·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. 아울러,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.

【평가 및 대응방향】

'26년 한국경제 성장률(2.6%)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+0.7%p 상승하며 발표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. 또한, '26년과 '27년 성장전망 모두 발표대상 선진국*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. '26년에 이어 '27년 성장전망(2.5%)도 동반 상향조정(+0.4%p)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·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.

* G20선진국(한국, 미국, 일본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, 이탈리아) + 스페인, 네덜란드

다만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,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지원,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, AI·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·사회 구조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다.

※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(IMF)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(www.imf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제 금융국 국제 통화팀	책임자	팀 장 최문성 (044-215-4840)
		담당자	사무관 안미진 (heungmijinjin@korea.kr)
			사무관 강현정 (31khj9004@korea.kr)
			연구원 이상원 (onnet@korea.kr)



참 고

'26.7월 IMF 세계경제수정전망 주요국 전망

(단위 : %, %p)

	'25년	'26년			'27년		
		'26.4월 전망 (A)	'26.7월 전망 (B)	조정폭 (B-A)	'26.4월 전망 (C)	'26.7월 전망 (D)	조정폭 (D-C)
세 계	3.5	3.1	3.0	△0.1	3.2	3.4	+0.2
선진국	1.9	1.8	1.7	△0.1	1.7	1.8	+0.1
미국	2.1	2.3	2.3	0.0	2.1	2.2	+0.1
유로존	1.4	1.1	0.9	△0.2	1.2	1.2	0.0
독일	0.2	0.8	0.7	△0.1	1.2	1.0	△0.2
프랑스	0.9	0.9	0.6	△0.3	0.9	0.9	0.0
이탈리아	0.5	0.5	0.5	0.0	0.5	0.5	0.0
스페인	2.8	2.1	2.1	0.0	1.8	1.8	0.0
일본	1.1	0.7	0.6	△0.1	0.6	0.7	+0.1
영국	1.4	0.8	1.0	+0.2	1.3	1.3	0.0
캐나다	1.9	1.5	1.1	△0.4	1.9	1.7	△0.2
한국	1.1	1.9	2.6	+0.7	2.1	2.5	+0.4
호주	2.0	2.0	1.9	△0.1	1.7	1.7	0.0
기타 선진국	3.0	2.6	2.8	+0.2	2.2	2.3	+0.1
신흥개도국	4.5	3.9	3.8	△0.1	4.2	4.5	+0.3
중국	5.0	4.4	4.6	+0.2	4.0	4.1	+0.1
태국	2.4	1.5	1.9	+0.4	2.1	2.2	+0.1
인도	7.7	6.5	6.4	△0.1	6.5	6.7	+0.2
러시아	1.0	1.1	1.1	0.0	1.1	1.1	0.0
브라질	2.3	1.9	2.4	+0.5	2.0	2.2	+0.2
멕시코	0.5	1.6	1.2	△0.4	2.2	1.9	△0.3
사우디	4.6	3.1	1.7	△1.4	4.5	5.5	+1.0
남아공	1.1	1.0	1.1	+0.1	1.3	1.3	0.0